

## 시문을 통해 본 면양정의 공간구조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patial Structure of the Myonangjong through the Analysis on Poetry

정영철\*

Chung, Young-chul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find the architectural concepts of Song-Sun and the spatial structure of the Myonangjong through kasa, sijo, and Chinese poems. He considered his place as a ideal place to dwell a secluded life which is surrounded by mountains, and opened to a field in front. That places is connected with geomancy or Feng Sui, and he attached great importance to placeness of the Myonangjong as a pavilion. As his place was called 'tyoro samgan', his place should be simple, and that was harmonized with nature. He regarded his place as a part of the outside space and its surrounding nature. As the pen name of Myonangjong shows that his way of life is very pure so he need not disgrace against the earth and the sky, he considered his building as a place of embodying the Confucian great law of heaven and earth. Myonangjong has a concentric circle structure of the scenery which is viewed panoramically along with the visual direction.

Keywords : Poetry, Myonangjong Song-Sun, spatial structure

주요어 : 시문, 면양정, 송순, 공간구조

## 1. 서론

### 1.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유교사회로 안정되는 16세기에는 유학이 한국 성리학으로서 독자적인 이론이 형성되는 한편, 보수세력과 진보세력이 대립되며 당쟁과 사회가 성행했으므로, 많은 사림들이 세상일에 회의를 느끼고 고향에 낙향해 별서를 짓고 자연에 귀의하는 은둔생활을 동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별서건축에는 당시 유학자들의 삶과 생활, 자연에 대한 태도 등과 같은 심상과 의식형태가 반영되었을 것이다.

본 연구는 16세기 유교적 세계관과 조선 문학을 형성하는데 주도적 위치에 있었던 대표적 유학자 중 한 사람인 송순이 건립하고 은둔하며 면양정문학의 산실이었던 면양정을 대상으로 그것에 대한 송순의 건축개념과 그 공간구조를 고찰하고자 한다.

송순(1493-1582년)은 관·학·문에 고루 걸쳐 뛰어난 성취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면양정을 지어 은둔하며 호남시가의 원류를 형성한 조선 문학 사상의 중요한 인물로서 만인의 사표가 되었던 한 시대의 경세가요 학자요 대시인이었다. 면양정은 16세기 한국 최대의 시가문학의 활동지이며, 호남 제일의 시단이 이루어진 곳으로

서, 이를 주제로 한 시문들에는 면양정 시단의 염원과 이상, 건축적 내용이 담겨져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현존하는 유구와 주변 건축물의 실증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시나 가사, 문집 등 시문을 통해 면양정에 대한 개념과 공간구조를 파악하고자 한다. 유학자들의 사상과 의식이 담긴 시문에는 자연공간과 삶의 근거인 집이나 자연에 대한 표현이 있기에 우리를 둘러싸는 대상으로서의 자연과 건축이 어떻게 인식되었는가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시문 속에는 작자의 삶과 사상이 담겨져 있고 맥박이 고동치고 있고, 시는 시작하는 주체나 그 놓여진 장소와 내적으로 깊이 연관되면서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다. 시문에는 개인의 사상과 뜻, 의식주의 생활, 자연과 풍경에 대한 노래 등이 담겨졌으며, 선인들의 관념적인 사고나 정신을 형상화하는 한편 구상적인 인간의 삶과 인간성, 자연과 상호관계를 서정적인 면으로 형상화하기도 하므로, 시문을 통해 삶의 의미해명이나 삶의 터전에 대한 단서가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 2. 송순의 생애와 면양정

#### 1) 면양정 송순의 생애

송순의 자는 守初 또는 誠之, 호는 企村 또는 俛仰亭으로 1493년(성종 24년) 전남 담양에서 출생하여 21살에 진사과에 급제하고 27살에 별시문과에 등과하여 벼슬길

\*경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공학박사

에 올라 개성부유수, 이조참판이 되었으나 죄인의 자제를 기용했다는 탄핵으로 한 때 유배되고 신진 사림과의 대립도 있었다. 이후 대사헌, 한성부 판윤, 우참찬 등을 거쳐 명종 때 좌참찬에 이르렀으나, 41세에 김안로 일파가 정권을 잡고 어진 선비들을 배척하므로 그 화를 피해 고향 담양에 내려와 기촌에 은거하며 제월봉 밑에 石林精舍와 면양정을 세우고引客詩遊하면서 물외의 강호 지락을 얻고 소요자적하다가 천수를 다하였다. 농암 이현보의 후배요 송강의 선배로서 조선의 시가사상에 강호 가도를 수립한 조선 전기의 대표적 시조 작가이며, 특히 그의 「俛仰亭歌」는 정극인의 「賞春曲」과 송강의 「星山別曲」 사이의 디딤돌이 된 뛰어난 작품이다.

송순의 낙향에 이어 담양에는 많은 유학자들이 은거하여 양산보의 소쇄원, 김성원의 식영정과 서하당, 성산 김윤제의 환벽당을 비롯하여 많은 별서들이 조영되었다. 송순의 양산보, 김성원, 김윤제, 임억령, 정철, 고경명, 김인후 등 소위 성산가단을 이룬 인물들과 깊은 교유를 나누었다. 『면양집』에는 송순과 시적 교류를 가졌던 인물들이 110명이 넘게 나타날 정도이다<sup>1)</sup>. 송순은 그들의 건축 조영에 한시를 지으며 이들과 깊은 교의를 나누었으며, 이들의 스승으로서, 또 친구로서 호남시가의 원류를 형성한 조선 문학 사상의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 그들의 교유는 거의 정자에서 이루어졌으며, 특히 누정의 신축이나 개축 때 많이 이루어졌고, 그들의 시가의 대부분은 누정이나 그 주변의 풍경을 둘러싸고 노래하였다. 송순이 중심이 되었던 이 때 면양정에서 시작활동의 정황을 두고 ‘면양정시단’ 또는 ‘면양정가단’이라고 일컫고 있다.

## 2) 면양정의 경영

담양 봉산 마항리 남쪽 무등산의 지맥인 제월봉이 있고 그 북단에 渴馬飲水의 형국을 지닌 백 여 척 단애 위에 풍치 수려한 곳에 면양정이 세워져있다. 이 면양정은 담양 원림의 선구자 송순이 1533년 창건한 것으로 송순이 퇴휴할 때마다 기거하면서 시문도 짓고 문객도 맞이하면서 창작활동을 했던 송순문학의 산실이다.

송순은 중종 19년(1524), 32세 때에 관씨로부터 기지를 구입하고 중종 28년 증추부사대사헌의 직을 그만두고 향리에 내려와서 창건하게 되었는데, 이는 터를 구입해 둔 지 10년이 되는 해이고 그의 나이 41세 때이다.

송순이 향리에 면양정을 세운 창건의 동기는 자연귀의 사상과 피세로 인한 隱身保重, 그리고 奉母, 퇴휴근거지 조성, 그리고 16세기 일어났던 누정창건의 붐 등으로 보고 있다<sup>2)</sup>.

면양정을 세워 은거한 후 몇 번의 출사와 은퇴를 반복했는데, 그 사이에 면양정이 황폐해져서 송순 60세 때 담양부사 오경의 조력을 얻어 중축되었는데, 이때 기대



그림 1. 면양정의 전경

승이 「俛仰亭記」를 쓰고 임제가 「俛仰亭賦」를 짓고 김인후, 박순, 고경명이 각기 「俛仰亭三十詠」을 지어 축하한다. 그후 면양정은 정유왜란 때 병화를 입어서 소실이 된 것을 효종 5년(1654)에 중건되었고 1989년 기둥과 기와를 갈고 현재의 정자 모습으로 중수되었다.

면양정은 구주산천이 다 눈에 들어오는 최상의 정자터라고 이야기되는 곳에 위치되었다. 북쪽에는 멀리 추월산, 남쪽에는 무등산이 바라보이는 소위 ‘백리형국’ 전체를 볼 수 있는 위치에 터를 잡은 것이다. 면양정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건물로 동남향하고 있으며, 한가운데에 한 칸 넓이의 방이 꾸며져 있고 주변을 모두 마루간으로 감싸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기둥은 방주를 사용하였으며 주두가 생략되고 부연이 없는 간소한 건물이다. 면양정은 광주기단, 담양기단들이 흔히 그러했듯이 낙향하여 경승지에 꾸민 것으로서 별서 누정건축에 해당된다.

## 3) 면양정 제재의 시문

면양정은 시우들이 모인 시문의 도량이 되었고 송순 시가문학의 산실이 되었다. 면양정을 제재나 주제로 한 시가는 문집에 41명, 59편으로 210수에 달하고, 송순이 생존할 때의 것만 11명, 24편 161수이며 그 가운데 국문 시가로는 가사 1편과 단가 9편이 전한다<sup>3)</sup>.

송순이 면양정을 중심으로 부른 한시로서는 「俛仰亭三言歌」 1수, 「俛仰亭」 1수, 「次俛仰亭韻」 2수(1538), 「次俛仰亭韻」 2수(1539), 「俛仰亭題詠」 1수, 「次俛仰亭題詠」 4수, 「復次俛仰亭韻」 3수, 「索題韻」 1수 등 15수가 남아있으며, 가사로서는 「俛仰亭歌」 1편, 시조로서는 「俛仰亭短歌」 7수, 「俛仰亭雜歌」 2수가 전해진다<sup>4)</sup>. 본고에서는 송순이 남긴 이들 시가들과 기대승의 「면양정기」, 「면양정삼십영」을 중심으로 면양정을 건축적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면양정가」는 송순 시가 작품 중 대표적인 걸작일 뿐만 아니라 그의 시가 활동에 있어 가장 빛나는 업적이

1) 박준규, 「송면양정연구」, 국어문학, vol.25, no.1

2) 김성기, 「면양송순시문학연구」, pp. 271-272

3) 김성기, 「송순의 시가문학연구」, 조선대박사논문, 1990, pp. 17-20

4) 이종건, 「면양정송순연구」, 개문사, 서울, 1982, p.90

다. 「면양정가」는 은일가사의 대표적인 것으로, 면양정을 중심으로 한 자연경관을 노래하였다. 즉 세속의 부귀영화를 떨쳐버리고 강호의 은일군자로서 유유자적하는 생활을 노래하는 것으로, 면양정이 있는 제월봉의 형세와 면양정의 모습을 그린 다음 그 주위의 아름다운 경치를 근경에서 원경으로 묘사하고 춘하추동 사시의 계절 변화에 따라 짜임새 있게 묘사하였다.

「면양정가」는 내용으로 나누면 크게 서사, 본사, 결사의 3단락으로 나누어진다<그림 2 참조>. 서사는 면양정의 위치와 성조에 대한 묘사로서, 여러 가지 수법을 동원해 대상을 표현하고 있다. 제월봉을 의인화해 생동감 있게 산세를 나타내고 다시 늙은 용의 모습으로 비유하였으며 면양정을 청학이 날개를 편 듯하다고 표현하였다. 본사는 면양정에서 바라보이는 근경, 원경, 춘하추동 사계의 경관을 삼중 구조로 노래한 것으로서, 앞부분은 면양정 앞을 흐르는 시냇물의 멋진 모습과 서로 정답게 나는 기러기의 교태, 넓고 먼 하늘 아래 그림같이 펼쳐진 산봉우리들의 모습을 생동감있게 묘사했으며, 뒷부분에서는 면양정의 아름다운 모습을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 생생하게 묘사하면서 그 속에서 살아가는 송순의 풍류와 흥취를 함께 그리고 있다. 결사는 자락과 연군의 정을 표현한 송순의 의중을 푼 것으로서, 자연에 몰입해 풍류 생활을 하면서도 임금의 은혜를 생각하는 유학자의 자세를 나타냄으로써 자연적 친화와 유교적 충의 사상을 결합한 강호가도의 전형을 만들어내었다.

「면양정가」에는 이상세계의 배경으로 주위 승경과 경물이 나타나기도 하고, 사계절에 따르는 다양한 생활 속에서 범속한 생활을 표현하기도 했는데, 풍류 속에서 신선의 세계임을 나타내는 이 모든 것을 합친 것이 이상향으로서의 면양정인 것이다.

한편 면양정에서 보여지는 경관을 주제로 여러 문인들이 서로 시를 지어 화답하면서 쓴 가사체 형식의 제영 시도 다수 있다. 제영의 개념이 ‘제목을 정하여 놓고 시가를 지음’이라고 규정되듯이, 제영이란 시가를 짓되 임의의 주제나 소재로 시가를 짓는 것이 아니고 정하여졌거나 주어진 소재로 시가를 지음을 말하는 것이다.

「면양정삼십영」은 면양정 주위의 승경 30곳을 대상으로 하여 똑같은 주제를 놓고 운봉 고경명, 하서 김인후, 석천 임억령 등 세 사람이 서로 시를 지어 화답하면

서 읊은 시이다<그림 5 참조>.

## II. 은둔과 대도적 삶의 구현

조선조 유학은 16세기에는 본격적으로 한국 성리학으로서 독자적인 이론이 형성되는 경지에 들어섰지만, 한편 훈구파와 사림파가 갈등을 일으키는 당쟁과 사회의 격변 시기이기도 했으므로, 여러 차례의 사회로 인해서 고향에 낙향해 은둔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유교적 사유를 생활 속에 실천하고자 했다.

이처럼 조선시대에는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이유로 은둔사상이 지배적이었으므로 유학자들에게 이상향으로 등장한 것이 강호, 산림, 전원이었고 안빈낙도와 守分知足, 강호한정, 전가한거의 사고와 생활이 추구되었으며 많은 사람이 실제로 전원으로 돌아가 별서를 꾸미고 은둔적 생활을 하기도 했다.

즉 성현을 평가함에 '太上立德 其次立功 其次立言'이란 三不朽說이 있듯이<sup>5)</sup>, 유교사회에서는 수덕이 첫째이고 사군이 둘째이며 학문연찬이 셋째로 여겨졌기에 사서인들은 힘써 공부해서 환로에 나아가 제세안민을 하지만 군주로부터 버림을 받으면 강호에 묻혀 성현서를 벗어나 학문연찬에 힘쓰는 은둔적인 생활을 꿈꾸었던 것이다.

곤궁하게 살아갈지라도 산수를 벗하여 살아가는 안빈낙도나 제 직분을 지켜 분에 넘치지 않도록 그칠 줄을 아는 수분지지, 관직을 내놓고 전원으로 돌아가 심신을 수양하겠다고 하는 致仕歸田과 江湖閑情<sup>6)</sup>은 유학자들을 실존케 하는 요인이었다. 곤궁하게 살면서도 평안한 마음으로 천도를 지킨다는 안빈낙도의 사상은 유학자들이 항상 희구한 것으로서, 논어 “貧而無怨 難 富而無驕 易”, “飯 食飲水 曲肱而枕之 樂亦在其中矣 不義而富且貴 於我如浮雲”(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즐거움이 또한 그 속에 있고 의롭지 아니한 부귀는 나에게 뜬 뜬구름과 같다)는 그 사상이 고도로 승화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성리학자들은 일상생활에서 理의 의미를 투철하게 이해하고 그 앎을 구체적으로 행위화하는 것을 공부론의 핵심으로 삼았으므로<sup>7)</sup>, 지행합일을 위해 자신들의 유학적 신념과 사고를 일상의 삶과 건축조영에 반영시키려 했고 다시 그 건축을 통해 그들이 추구한 유학자적 삶을 구현하려고 했을 것이다.

송순 역시 그 누정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지내면서 유학자적인 참된 인간관계를 이루며 하늘에 부끄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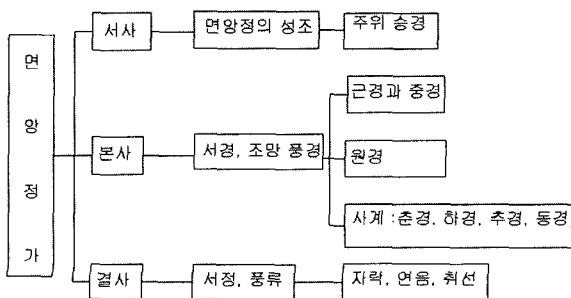


그림 2. 「면양정가」의 내용 분석

5) 서원섭, 『시조문학연구』, 형설출판사, 1995, p.310  
 6) 시골(강호)에서의 한가로운 정이란 뜻의 강호한정에서 강호한강과 호수로 세상이란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조정에 대한 시골의 뜻으로도 쓰이며 한정이란 한가로운 정을 뜻한다.

7) 서원섭, 전계서, p.132

8) 김형효 등, 「퇴계의 사상과 그 현대적 의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p.292

없는 안빈낙도의 대도적 삶을 구현하려 하였다고 생각된다. 송순의 생활신조는 ‘관용과 대도’로서, 일평생 당당한 대로만을 걸었다<sup>9)</sup>. 대로는 사심없는 정도, 군자의 길이며 대도인 것이며 이러한 송순의 뜻은 그의 호 면양정에서 잘 드러나며<sup>10)</sup>, 「면양정단가」와 「면양정가삼언」 등에서도 볼 수 있다.

則地兮 仰則天兮  
 兩位之際兮 從而生我兮 居焉  
 領溪山兮 風月 將與偕兮 老云  
 굽어는 땅이오 우러러는 하늘이라  
 두 분의 께를 조차 내 삼겨 살아시니  
 계산에 풍월 거느려 늙은 뒤를 몰래라

이 「면양정단가」 제1곡은 강호자연에서 ‘俛仰宇宙之義’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안빈낙도의 모습을 노래하는 것이다. ‘면양우주’는 하늘을 우러러보고 땅을 굽어보는 사이에 천지만물의 이치를 심성수련을 통해 자신의 몸속에 체현시키고 호연의 흥취를 느끼는 대도적 삶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맹자가 말했던 ‘仰不愧於天 俯不 於人’의 큰 뜻에 상통한다. 溪山은 둘러두고 보는 배경이요 풍월은 초려삼간을 나누어 준 친구이다. ‘늙은 뒤를 몰래라’는 시간을 고정시킨 한없는 즐거움으로서 이것이 자연 동화, 곧 무아의 혼연 일체인 것이다.

이러한 면양우주의 호연지흥과 안빈낙도의 삶은 송순의 유일한 삼언가인 「俛仰亭歌三言」에서도 볼 수 있다<sup>11)</sup>.

俛有地 仰有天 亭其中 興浩然  
 招風月 搥山川 扶藜杖 送百年  
 굽어서는 땅이요 우러러는 하늘이라  
 이중에 정자스니 호연한 흥취이네  
 달과 바람을 불러들이고 산과 내를 끌어들여  
 명아주로 지팡이 삼고 한 평생을 보내려네

뒤 4귀를 보면 ‘초풍월, 읍산천’은 「면양정잡가」에 ‘나 한 칸, 달 한 칸, 또 한 칸은 청풍에 맡기고 강산은 드릴데 없어 정자 주위에 놓고 바라보자’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다. 여기서 송순은 자연과 일여이고 명아주 지팡이에 의지해 서있으면서 ‘송백년’이라고 불리듯이, 그러한 실존적 삶은 인생을 통하여 변하지 않고 영원의 모습을 머금고 있기를 염원하는 것이다. 이 유학적 삶을 끝까지 지키며 구현시켜가려는 모습은 초지일관의 의미

를 갖는 송순의 자 ‘守初’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 삼언시 앞뒤 귀절은 각각 대응하는데, ‘면유지 양유천/초풍월 읍산천’, ‘정기중/부이장’, ‘홍호연/송백년’이 그것이다. ‘면유지 양유천 정기중’은 천지간에 정자가 세워져 있는데, 그것은 구부러 땅에 면해 부끄러울 바 없고 우러러 하늘에 부끄럼 없는, 그러한 장소가 이 정자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첫째부터 세째까지의 첫 글자를 합하면 ‘면양정’이 되는데, 이는 건축물로서 정자의 명칭임과 동시에 송순의 호이기도 하면서 송순이 지향하는 사상의 상징이며 정자와 자신의 조화와 동일시를 의미한다. 즉 “천지간에 부끄럼 없는” 무후의 장소는 이 정자로서 만들어지는데 건축물로서의 면양정과 함께 송순 자신에 의해서도 호연의 기가 일어나면서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한 “천지에 부끄럼 없는” 삶은 송순이 화담을 노닐며 서경덕을 추모해서 지은 시 「游花潭憶徐處士敬德」<sup>12)</sup>에서 엿볼 수 있다.

有志知師孔 安貧不愧顏 百年餘業在 溪上屋三間

이 시는 ‘공자의 도를 아는 사람은 안빈낙도하고 안회에 부끄럼없는 것이며 그러한 뜻이 있는 사람으로의 생애를 건 긴 수업의 여운은 계곡 위의 집 세 칸에 있다’는 내용으로서, 곧 계곡에 접하는 간소한 세 칸의 집이 서경덕이 죽게 된 지금도 백년이라는 영원의 모습과 함께 그의 안빈낙도의 도를 나타내는 것이다<sup>13)</sup>. 말하자면 안회에 부끄럼지 않으며 천지에 부끄럼 없는 안빈낙도의 삶은 공자의 도를 즐기는 삶이었을 것이다.

이처럼 송순은 그의 별서 누정에서의 삶을 자족적인, 안빈낙도의 실존적 의미를 부여했음을 알 수 있다. 그에 게 있어 간소한 초려삼간은 이상적 은둔처로서 천지에 부끄럼 없이 공자의 도를 즐기며 대도적 삶을 구현하게 하는 무후의 장소인 것이다.

### III. 송순의 건축개념과 면양정 건축

#### 1. 자연의 일부로서의 면양정

선인들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 합일되어야 한다는 자연관에 따라서 내외부의 공간구성에 자연과 생활의 조화를 찾으며 자연풍경에 대한 아름다움을 창조하거나 보존하기 위해 자연을 도입하며 연결시켰다.

면양정은 높은 구름에 세워 주위 산천과 평야 및 원산을 주 조망 대상으로 하였지만, 송순은 분지를 두고 지은 다음 시처럼 연못을 만들고 주위에 꽃과 수목을 심어 인공과 자연을 함께 바라보며 즐기도록 꾸몄다.

9) 김성기, 전계서(1998), pp. 266-267

10) 호를 면양정이라 한 송순의 뜻은 기대승의 면양정기에 잘 나타나 있다: “굽어볼 땅이 있으면 하늘이 있어 이러한 언덕에다 정자를 지으니 그 흥취가 호연하다. 바람과 달을 불러들이고 산과 시내를 끌어다들여 즐기는 것이 나의 남아 있는 목숨을 바치는데 있어서 충분하다.”

11) 「俛仰集」卷之三 三十右, 「李朝名賢集」3, p.184

12) 「俛仰集」卷之二 二十右, 「李朝名賢集」3, p.160

13) 西垣安比古, 「背山臨水して「すまう」こと」, 일본건축학회 계획계논문집 제409호, p.147

百花牆下要添興 强取烏盆作小池  
 試向庭前求意味 一天明月夜相宜  
 온갖 꽃이 피는 담 아래에 흥을 돋우기 위해  
 검은 분을 취하여다가 작은 못을 만들었네  
 뜰 앞에 두고서 의미를 가져보는 것은  
 온 하늘이 밝은 달이 밤이면 서로 알맞게 되네

이에 대해 「면양정기」에는 ‘집은 세 칸으로 되어 있으며 사방이 트여 있고, 그 서북쪽은 절벽이 극히 가파르며, 뾰족한 대나무 숲이 병풍처럼 둘러있고, 밋밋한 삼나무가 울창하게 들어서 있다. 동편 아래쪽에는 몇 개의 나무기둥을 세워서 온실을 지어 그 안에 온갖 꽃을 심어놓고 낮은 담장을 둘러쳐 놓았다.’ 라고 묘사되어 있다.

松籬兮昇月 至竹梢兮轉籬  
 玄琴兮橫按 邊巖兮猶座  
 何許失伴兮鴻雁 而獨鳴兮云徂  
 송리에 달이 올라 죽초에 잠간 뜨니  
 거문고 빗기 안고 바위에 안자실제  
 어디서 외기러기는 홀로 울어 예는다

위의 「면양정단가」 3곡에서처럼 수간모옥을 지으면 서도 대나무와 소나무 울타리를 두르고 만산의 달과 풍경을 끌어들이므로써 자연환경과의 맥락 속에서 삶의 공간을 확대하고 있다. 이 객관적인 대상으로서의 자연은 인간의 투사작용을 거치면서 삶의 공간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면양정은 자연 등의 주변 환경과의 감각적 교류에서 자아와의 합일을 찾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소유자 송순에게 정서의 안정을 가져다 주며 그것을 추구하는 자아인식 공간이자 자기와 외계 환경과의 사이에 조화를 이루는 관계를 확립해 준다고 할 수 있다<sup>14)</sup>.

한편 별서를 자연의 일부로서 여기는 것은 나아가 자연도 환경의 일부일 뿐 아니라 친구로서 여겨지게 된다. 송순의 칠언절구 「면양정」에는 다음 시가 있다<sup>15)</sup>.

百里羣山擁野平 臨溪茅屋幸初成  
 此身不繫蒼生望 宜興沙鷗結好盟

일백리 여러 산이 들을 끼고 평평한데 시내를 임하여 초가집이 이루어져 있다. 이 몸이 백성들이 바라는 것을 이룰 수 없으니 마땅히 흰 갈매기와 좋은 맹세맺세

여기서 모옥은 산으로 둘러싸인 계류를 끼는 장소에 배산임수하여 세워진 것이며 또 관리의 도를 떠나 자연을 친구로 하는 생활이 노래된다. 즉 배산임수하여 세워

진 모옥이 만들어진 장소에 있어서, 사람은 비로소 자연을 친구로 하여 군자의 이상적 삶을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것은 송순이 남긴 「면양정잡가」에도 잘 나타난다.

十年을 經營 亨야 草廬 三間 지여 내니  
 나 혼 간 들 혼 간에 청풍 혼 간 맛져 두고  
 강산은 들일 디 업스니 둘러 두고 보리라

면양정이 草廬삼간이라고 하지만 10년이 걸린 노작이고 「次 仰亭韻」에 의하면 난간을 돌렸음을 알 수 있는데, 이 난간은 ‘無邊灑氣接欄干’이라고 되어있듯이 외기에 접하는 것으로서, ‘내가 한 칸, 달이 한 칸 차지하고 또 한 칸은 청풍이 맡는다’고 하듯이 정자 주위에 강산이 둘러싸고 달이나 청풍이 불러들여져 자연이 벗으로서 노래되고 있는 것이다. 청풍과 명월, 그리고 강산에 묻혀 사는 몰아일체의 경지가 자연의 일부로서의 정자를 통해서 노래되는 것이다.

또한 「면양정단가」에는 ‘天地兮帳幕 日月兮燈燭..將不知兮有晦(천지를 장막으로 하고 일월을 등축으로 하고 ..장차 늙은 누를 모를이라)’라는 구절이 보이는데, 여기서는 천지 사이를 집으로 하고 늙어가는 것도 모르게 사는 모습이 노래되고 있다. 초려삼간의 간소한 집에서 자연을 친구로 삼으며 자연과 일체가 되는 구조를 갖는 것이다.

면양정에 있어서 자연과 일체되는 모습을 칠언율시 「次俛仰亭韻」의 제1수 전반에 다음 시에서 볼 수 있다.

丹葉辭林下碧川 晚風吹雨過階前  
 猿山細入眉間沒 大野平徒掌上連<sup>16)</sup>

여기서 송순은 면양정에 거하면서 만추의 풍경을 바라보는데, 색이 빨갱게 든 홍엽이 파란 계천에 떠 흘러가고 정자 앞은 추풍이 불어 지나간다. 이같이 바라보이는 풍경은 훨씬 먼 원산까지도 미간에 들어오며, 풍경은 신체에 몰입되어 버린다. 또 손바닥은 들판에 신체에서부터 풍경으로 펼쳐져 침투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원산의 가경을 바라보았을 때 경관과 뜻이 융합된 순간의 심경을 노래한 것으로서, 말하자면 정자에 거하는 것으로 경관은 신체와 서로 몰입하고 침투하는 것이다.

이는 경관이 좋고 전망이 넓은 쪽에 정면을 두고 병풍으로 쳐져있는 것 같은 안정적 이미지를 갖는 명당터에 임지하여 인간을 주체로 하여 시각적 및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것이며, 그 누정은 주위로 확장되며 주위 세계의 의미부여의 원점이 되는 것이다.

14) 이용범, 「한국누정건축의 공간특성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사논문, pp.2-3

15) 「 仰集」 卷之一, 三十右, 「李朝名賢集」 3, p.145

16) 「俛仰集」 卷之一, 三十三左, 「李朝名賢集」 3, p.147

## 2. 이상향적 선경으로서의 면양정

이처럼 삶의 터를 마련함에 그 장소의 입지에 대해 커다란 관심을 기울인 것을 보여주는데, 이는 더 나아가 이상적인 명당을 추구하는 풍수설과 연관된다. 즉 이상적인 은둔적 삶의 터전을 마련함에 있어서 풍수설의 영향으로 배산임수하여 장풍득수 하는 형국에 무릉도원적인 이상향적 길지를 노래한 것이다. 「면양정가」는 면양정 주위의 산수 경계, 계절에 따른 아름다움과 유상지락 및 호연지기를 읊은 146귀로 된 장편 가사이다. 이 시가의 첫 부분에 면양정 주변의 풍경을 노래하며 시작하는데,

“무등산 한 활기 띄히 동다히로 버더이서 멀리 펼쳐와 제월봉이 되어거를 무변대야의 무삼짐작하노라”<sup>17)</sup> 되어 있어 면양정이 배산임수하는 장소에 자리잡고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면양정가」의 모두 부분에 “... 옥천산, 용천산에서부터 흐르는 물이 정자 앞의 넓은 들에....” 처럼 정자 앞의 들과 개천에 대해 노래하는데, 면양정 앞엔 용천산과 옥천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합수되어 흐르는 창강과 넓은 들이 잇달아 펼쳐있으니, 이를 송순은 ‘쌍용이 몸을 뒤트는 듯, 긴 비단을 펼친 듯’ 하다고 묘사하고 있다.

또 주위의 산에 대해서는 “둘러 서있는 것은 산일까 병풍일까...” 하며 이어서 추월산, 용구산, 몽선산, 불대산, 어등산, 용진산, 금성산 등 7개의 산의 이름을 들어 노래한다. 면양정 주변 경계의 수려함을 탄상하며, 특히 칠곡(七曲)의 기묘함과 정자 앞에 펼쳐지는 긴 내와 너른 들판의 유연한 경관을 노래한다. 창강 너머로 산줄기가 병풍처럼 길게 둘러쳐 있는데, 멀리 북서쪽의 추월산을 머리삼아 용귀, 몽선, 불대, 어등, 용진, 금성의 못 산들이 면양정의 안대로서 연이어 펼쳐지고 있다. 이것을 「면양정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용암, 금성, 용천, 추월, 백암, 불대, 수연, 용진, 어등, 금성 등 많은 산들이 더러는 곳간 같기도 하고, 더러는 성곽 같기도 하며, 병풍같기도 하고 방패 같기도 하며, 누운 소 같기도 하고 말의 귀같기도 하다... 아득한 큰 들판이 머리는 추월산 아래서 일어나 꼬리는 어등산 밖에다 감추었지만, 편편하고 넓으며 길이 비스듬하게 파이기도 하고 홀어져 보이기도 하며, 언덕의 수풀이 서로 무성하여 햇빛을 가리는 것이 그림같이 섞여 있고...’

이러한 원형적인 이상적 장소로 선정된 면양정은 더 나아가서 “가운데 구배는 굽기든 늘근 용이 선잠을 잤다가 머리를 아쳐시니 너라바회 우에 송죽을 헤치고 정자를 안쳐시니 구름 탄 청학이 천리를 가리라 두나래 버렸는듯”<sup>18)</sup> 처럼 용과 학에 의해 형상화되고 상징적으로 노래되었다.

이러한 용과 청학은 풍수설과의 연관을 말해주면서 이상세계의 출현의 길조로서 불러졌을 것이다. 송순 60세 때 면양정을 노래한 칠언절구 「次冲和製俛仰亭」絶句四首중에서 “七巒橫斷得中區 龍首臨溪舉欲浮 瀾野遙山供一望...” 고 있는 것도 「면양정가」와 똑같이 노래되는 것이고, 7개의 산들로 둘러싸인 장소에 계곡에 임하고 아주 넓은 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세워진 정자가 용과 겹쳐져 노래됨으로써 원형적인 이상적 명당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중건은 「면양정가」를 분석하여 명산명봉을 모두에서 노래하는 것이 서기가 깃드는 산맥과 함께 부지를 얻어 길조를 얻으려는 성조가와 풍수지리의 영향을 볼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sup>19)</sup>.

超然羽化孰云難 속세떠나 신선됨을 누가 어렵다노  
得臥蓬萊第一巒 봉래산 제일봉에 누워있는걸

위의 「면양정제영」에서도 제월봉 위의 면양정을 봉래산에 비유하여 안거의 요지를 얻은 기쁨을 노래하며 우화등선하는 기상을 보이듯이, 도학적 및 풍수적 영향을 엿볼 수 있다. 「복차면양정운」에서도 제월봉을 봉래산 제일봉이라 하여 봉새가 구만 번이나 날개를 쳐도 다 건너지 못할 시야가 펼쳐진 곳에 별들이 주렁주렁히 달린 아름다운 이곳이 송순이 그린 이상향이며 마음의 안식처였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송순의 노래에서부터 면양정이 입지한 장소가 풍수지리설에 의해 영향받았음을 알 수 있다. 즉 산수 사이에 장소를 선택할 때 아름다운 명산으로 둘러싸인, 그리고 앞은 넓은 들로 열린 장풍득수 형국의 장소가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진 것을 엿볼 수 있다.

## 3. 면양정의 내부 공간

「면양정기」에 건물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다. ‘정자는 대체로 삼칸으로 지었으며 사방이 트여 있고 긴 대들보를 걸쳤는데, 그 대들보가 상인방보다 갑절이나 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를 주시하면 곧게 확 띄어 평평하고 반듯하며, 그 모서리는 새가 날개를 펼친 듯하다<sup>20)</sup>’라고 있어 그 모습을 짐작케 한다.

면양정은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서, 방이 1칸을 차지하고 사방으로 마루가 있는 중심형 평면<sup>21)</sup>을 하고 있다. 이는 면양정이 일종의 별서 누정이기 때문에 최소한 기거할 수 있는 방을 필요로 했기 때문일 것이다. 즉 본가에서 떨어져 경승지에 설치된 일종의 제2주택개

19) 이중건, 전게서, p.128-129

20) 이강로 등, 『문학의 산실 누정을 찾아서 1』, 시인사, 1987, pp. 39-51

21) 누정 평면 유형은 방의 유무에 따라 무실형과 유실형으로 대분되고, 유실형의 경우 방 위치에 따라 중심형, 편심형, 분리형, 배면형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7) 이중건, 전게서, p.124

18) 「俛仰集」卷之四, 「李朝名賢集」3, pp.185-1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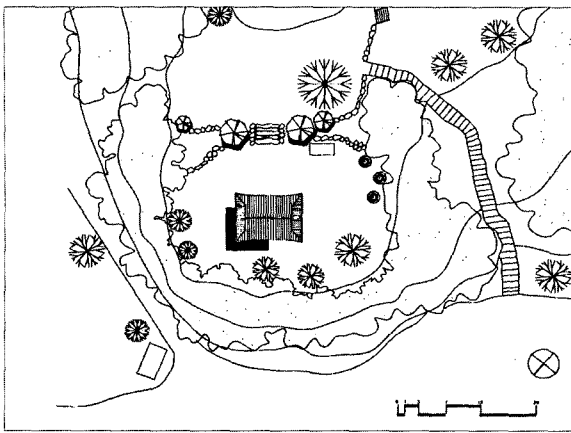


그림 3. 면앙정의 배치도  
(전득염·전봉희, 한국의 건축문화-9전남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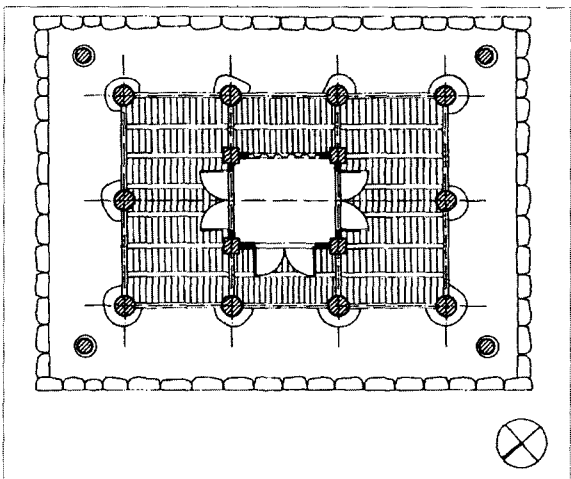


그림 4. 면앙정의 평면도  
(전득염·전봉희, 한국의 건축문화-9전남편)

념<sup>22)</sup>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누정에 있어서 실의 위치 여하에 따라서 마루의 이용 효율 및 경관에 대한 조망 양부는 달라지게 된다.

즉 「면앙정기」에 ‘사방이 트여 있고’, 「면앙정잡가」에 ‘초려삼간 지여 내니 나 한 간 달 한 간 청풍한 간’으로 나타났듯, 면앙정은 사방의 자연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개방되며 시간적으로 트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문하생들을 길러낼 강학 장소가 아닌 자연풍류나 낭만적인 대상물로서의 기능성을 더 강조하기 때문에 한 가운데 우주만물을 관조하는 중심공간이 필요하여 정자 한가운데 방을 1칸 설치하고 사방을 띄우는 형식을 취했을 것이다.

한편 면앙정은 10년을 경영하여 이루어졌으며 난간을 돌렸을 정도로 격식을 갖춘 정자일 것이나 송순은 규모를 자랑하지 않고 초려삼간으로 부르는데, 이는 자연 속

에 은둔하며 도학자적 삶을 살려는 송순에게 형식적인 것보다는 그 정자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하는 장소의 입지환경이 더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일 것이다. 정자 건축은 외부에서 내부, 곧 정자 자체를 바라보는 것보다 내부에서 외부환경, 자연을 조망하는 것이 그 본질이기 때문이다.

#### IV. 면앙정의 입지와 경관구조

##### 1. 입지 형식

선인들은 삶의 터를 잡는 데에 매우 신경을 써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했다. 특히 별서 누정 건축의 성격상 건축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하는 장소의 입지 문제가 중요시되었을 것이다.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사대부의 이상적 복거형식에 대해서, 지리와 생리를 따져 대를 이어 살 만한 곳을 정하고 사대부로서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산수자연에 가까이하는 것을 다음처럼 제시했다. “그러므로 기름진 땅과 넓은 들에 지세가 아름다운 곳을 가려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좋다. 그리고 10리 밖 혹은 반나절 길쯤 되는 거리에 경치가 아름다운 산수가 있어 매양 생각이 날 때마다 그 곳에 가서 시름을 풀고 혹은 유숙한 다음 돌아올 수 있는 곳을 장만해 둔다면 이것은 자손 대대로 이어나갈 만한 방법이다.”<sup>23)</sup>

면앙정은 위에서 언급한 이상적인 복거를 충족시키며 구주산천이 다 눈에 들어오는, 근처에서 최상의 정자터라고 평가되는 곳에 위치되었다. 북쪽에는 멀리 추월산, 남쪽에는 무등산이 바라보이는 소위 ‘백리형국’ 전체를 볼 수 있는 위치에 터를 잡은 것이다. 말하자면 입지에 있어 중요한 것은 조망대상이 어디까지 미치는가 하는 지리적, 지형적 관점의 인지범위라 할 수 있는 것으로, 면앙정은 백리형국이 인지되고 조망되는 곳에 입지된 것이다.

이는 면앙정이 위치한 형국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백두대간에서 갈라져 나온 호남정맥이 담양의 서북쪽에서부터 광주의 무등산 가까이에 이르기까지 남쪽으로 크게 3줄기를 뿜어 내는데, 서편의 한 줄기는 나주의 진산이 되는 금성산으로 이어지고, 추월산에서 갈라져 나온 줄기는 마치 병풍을 둘러 놓은 듯 한 줄기로 길게 뿜어 광주 서편의 어등산에까지 이어지고, 옥천산에서 갈라진 줄기는 무등산으로 이어진다. 면앙정은 이 세 갈래의 줄기 중 옥천산에서 갈라져 나온 줄기가 서편으로 뿜어 창강에 맞닿아 있는 곳에 위치하니 넓게 펼쳐진 들판의 북관, 장풍득수 형국에 놓여져 있는 것이다.

「면앙정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송순이 「면앙정가」에서 ‘무등산 한 줄기 산이 동쪽으로 뿜어 있어, 멀리 떼쳐 나와 제월봉이 되었거늘’ 이라고 명기하였듯이, 호남정맥이 흘러 무등산에 이르기 바로 전, 옥천산에

22) 이재근, 「조선시대 별서정원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92, p. 41

23) 이중환, 「택리지」, 복거총론, 산수조

서 갈라진 맥이 동쪽으로 뻗어 창강에 이르러 제월봉을 이루고 그 바로 아래 ‘구멍에 든 늙은 용이 선잠을 막 깨어 머리를 얹혀 놓은 듯’ 이 맺혀진 곳에 면양정이 위치하고 있다.

이처럼 면양정은 산들로 둘러싸인 곳에 계곡에 접하고 넓은 들을 전망할 수 있으며 용과 청학에 의해 형상화되는 장소를 택하되, ‘내려다보면 땅이, 우러러보면 하늘이 있어 그 가운데 정자가 있으니 풍월 산천 속에서 한 백년 살고자 한다’ 고 밝힌 것과 같이 고입지 형식을 취하였다.

면양정은 전망이 좋은 구릉 위에 자리잡고 있는데, 이는 유학자들의 위상적 입지관, 곧 높은 곳에 있는 정자는 외부환경을 조망함으로써 마음을 비우는 것으로 그 존재가치를 인식하며, 이와 상대적으로 낮은 원림 속의 정자는 생각을 통일시키고 무언가를 골몰하게 하는데 적합한 장소적 이미지로 여기는 관점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sup>24)</sup>.

2. 경관 구조

1) 조망대상

누정의 기능이 휴식과 유락과 함께 조망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므로, 조망대상의 위치와 경관구조는 누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조망수법은 대부분 차경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조망 대상은 강, 산, 평야, 그리고 인공적인 시설물이 되지만 그 상호간의 한계를 정하기는 어렵다.

면양정의 경우, 고입지 형식으로서 북쪽과 서북쪽에 자리 잡은 추월산, 병풍산과 산 밑에 펼쳐지는 마을과 평야를 바라볼 수 있게 세워졌다. 전남감사로 부임하여 이곳을 유람했던 이덕동이 ‘山川風景 果爲道內名區’ 라 하였고 담양부사로 와 있던 이안눌이 ‘호남의 아름다운 경치는 이 산천이니, 아홉가지 봉우리가 난간 앞에 펼쳐져 있다’<sup>25)</sup>고 찬탄한 것처럼 그 형승은 실로 수려한 곳으로, 면양정의 전면에는 창강을 따라 이어져 내리는 병풍같은 산줄기가 안대로 전개되는데, 면양정에서 멀리 동북쪽으로 추월산을 기점으로 하여 용구, 봉선, 불대, 어등, 용진, 금성 등 여러 산이 우뚝우뚝 솟아 있고 서남쪽으로 푸른 야산이 연이어 벌려져 있다. 기대승은 「면양정기」에서 ‘머리는 추월산 아래에서 일어나 꼬리는 어등산 밖에서 감추었다’고 표현하였다. 그리고 제월봉과 이들 산 사이는 남북쪽으로 탁 트여 넓은 평야를 이루고 있다. 송순 생존 당시에는 정자 뒤에 옥천과 용천산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이 두 시내를 이루어 넓은 들을 굽이쳐 흐르고 있어 주요 경관요소인 산, 넓은 들, 촌

락, 시내, 모래 등 다양한 경관을 감상할 수 있었다고 한다.

「면양정가」에 나타나는 조망대상은 다음과 같다. 「면양정가」는 제월봉과 면양정의 위치를 설명하면서 시작되어 앞에 펼쳐지는 수경과 산경을 묘사하고, 이어서 주위의 경관을 근경에서 원경으로 그리고, 다시 계절에 따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시가의 내용에서 보이듯이, ‘옥천산 용천산 나린 물이 정자 압 너븐 들해 울울히 퍼진드시 넘겨든 기다마나 프르거든 흐디마나 쌍용이 뒤트난닷 긴 깃을 채 펴난닷 어드러로 가노라 브삼 일배얏바 달난닷 따로난닷 밤낫드로 흐르난닷’ 이라고 이수를 노래했고, ‘긴 하늘 아래 두르고 꼬잔거슨 뉘헝가 병풍인가 그림가 아닌가, 노픈닷 나즌닷 근난닷 닛난닷 숨거니 가거니 머물거니 어드러은 가운데 일흠난 양하야 하날도 짓티아너 옷독이 섰난거시’ 라고 들녘 건너 병풍같은 산을 산수화처럼 그리고 있다.

「면양정가」는 이처럼 면양정을 노래하고 있으면서도 산, 곧 자연환경과의 맥락에 놓아 둔 것이 주목할 만하다. 누정을 산과 관련지어 연계시킴으로써 공간의 확대를 의식하는 것으로서, 누정 안에 앉아서도 시선은 훨씬 멀리 있는 산을 향하고 있어서 자연을 끌어들이며 그 공간이 의식 속에서 확대되고 경관을 바라보는 축선을 따라서 근경, 중경, 원경의 동심원적인 경관구조를 갖는 것이다.

면양정에서 조망되는 이 경관구조는 「면양정삼십영」에서도 볼 수 있다. 「면양정삼십영」은 면양정에서 보이는 구체적인 자연의 조망 대상을 결합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면양정의 경관가치를 더 의미있게 만들고 있다. 즉 관찰자는 면양정과 관망 대상을 함께 인지하여 면양정에서 보는 경관의 영역, 곧 지각장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30영을 설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지각장을 구성하는 장소들의 구심점은 면양정이 입지하고 있는 곳이며, 구성요소는 대부분 그 지역의 높은 산과 그에 속하는 관망대상이 주된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추월산을 랜드마크로 하여 산들에 의해 이어지는 병풍의 이미지와 누정 사이의 자연 공간 전체를 누정의 지각장 안으로 인식하고 그 경관들을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다. 「면양정삼십영」을 그 경관요소에 따라 근경,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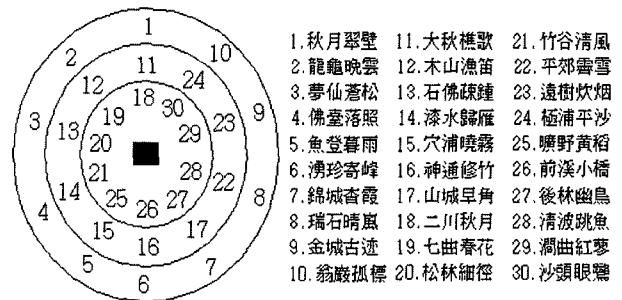


그림 5. 면양정삼십영의 내용과 동심원적 구성

24) 동문선의 누정기를 종합해보면 높은 곳과 낮은 곳의 정자의 차이점을 보이는 경관의 정위뿐만 아니라 보는 자의 심성의 관점도 위상에 따라 다르다고 말하고 있다. 이용범 외2인, 「경으로 본 정자건축의 장소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 10권 6호, 95  
25) 정익섭, 「호남가단연구」, 민문고, 1989, p.166



표 1. 면양정삼십영의 경관구성요소

자연요소	동물	기러기, 꿩꼬리, 물고기, 해오라기
	식물	소나무(3), 대나무(2), 버, 춘화, 여뀌꽃
	자연물	산(용진, 추월, 용구, 몽선, 불대, 어등, 금성, 서석, 대추, 목산), 물(川, 浦, 曲), 모래밭, 모래언덕, 바위, 산봉우리, 절벽, 들, 가는 길, 맑은 물
	자연현상	구름, 낙조, 저녁비, 노을, 아지랑이, 가을달, 바람, 개인 눈, 밥짓는 연기
인공요소	인공물	절(석불사, 신통사), 성(금성, 산성), 다리
청각	종소리, 빨소리, 어부피리 소리, 나무꾼 노래	
기타	고적	

경, 원경으로 분석하여 도식화해 보면 <그림 2>처럼, 근경이 10수, 중경이 10수, 원경이 10수로 나타나는데, 秋月翠壁, 龍龜晚雲, 夢仙蒼松 등 1명에서 10명까지는 산의 원경을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파노라마적으로 읊고 다음에 중경과 근경 순으로 정자로 다가오면서 경관을 노래하고 있다.

「면양정삼십영」에서 보면 경관구성요소 중 멀리에 조망되는 산들이 10회로 가장 많이 나오고 강과 개천이 7회, 모래 2회로 나와서 산과 물이 경관요소로 많이 등장함을 알 수 있다<표 1>. 이는 가까운 경관보다 멀리서 조망되는 커다란 스케일의 경관을 많이 읊은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서, 산을 주제로 한 것을 보면, 秋月翠壁1, 龍龜晚雲2, 夢仙蒼松3 등으로 다른 경관의 장소보다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어, 산들이 경관 범위를 형성하는 주된 구성요소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자연경관 요소들을 朝暮四時에 걸쳐 다양하게 표현함으로써 누정에 오른 사람들에게 시간과 계절에 따른 다양한 경관을 상상하여 즐길 수 있도록 했다<표 2>. 먼저 시간의 변화에 따른 경관으로서, 면양정에서의 시간별 경관요소는 새벽 1회(穴浦曉霧), 아침 1회(山城早角), 저녁 6회(佛臺落照, 錦城杳靄, 魚登暮雨, 二川秋月, 清波跳魚, 澗曲紅蓼) 등으로 나타난다. 시간에 따른 경관의 묘사의 빈도수에서는 저녁의 묘사가 많은 것을 보아 시간적으로는 하루 중에서 저녁 장면을 특히 중요시했음이 엿보인다.

다음으로 계절의 변화에 따른 경관으로서, 면양정에서의 전망의 경개는 사계의 변화에 따라 더욱 아름답게 펼쳐지는데 춘경 1회(七曲春花), 하경 2회(魚登暮雨, 竹谷清風), 추경 8회(大秋樵歌, 木山漁笛, 石佛疎鍾, 漆水歸雁, 二川秋月, 遠樹炊煙, 曠野黃稻, 澗曲紅蓼(7)

표 2 면양정삼십영의 시간별, 계절별 경관요소

	시간별	계절별
새벽	穴浦曉霧(1)	춘경 七曲春花(1)
아침	山城早角(1)	하경 魚登暮雨, 竹谷清風(2)
저녁	佛臺落照, 錦城杳靄, 魚登暮雨, 二川秋月, 清波跳魚, 澗曲紅蓼(6)	추경 大秋樵歌, 木山漁笛, 石佛疎鍾, 漆水歸雁, 二川秋月, 遠樹炊煙, 曠野黃稻, 澗曲紅蓼(7)
		동경 平郊霽雪, 前溪小橋(2)

二川秋月, 遠樹炊煙, 曠野黃稻, 澗曲紅蓼), 동경 2회(平郊霽雪, 前溪小橋) 나온다.

추경 회수가 더 많이 나오는 것은 누정이 입지하고 있는 위치의 성격과 연관된다고 생각된다. 면양정은 원경으로 조망이 양호한 비교적 높은 위치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이서 느끼는 여름의 아기자기한 색색의 아름다운 자연보다는 멀리서 보이는 산의 아름다운 단풍이 더 우세한 경관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을 것이다.

2) 조망각도

조망각도는 누정 중심부서 바깥으로 볼 수 있는 각도를 말하며, 각 누정의 구조에 의해 그 각도가 달라질 수 있다. 면양정의 경우 좌향은 남동쪽이지만 조망대상은 「면양정삼십영」에서 읊어졌듯이 동북쪽을 기점으로 하여 북서쪽으로 내려오는 곳에 위치하여 비교적 넓은 조망각도를 취한다. 즉 면양정은 좌향과 상관없이 경관이 좋고 조망이 넓은 쪽으로, 경관이 트이고 이미지의 연출이 가장 좋은 곳으로 지향하고 있다. 이는 지세와 시계적 방향설정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면양정의 경우 구주산천이 다 들어오므로 근처에서 최적지의 정자라고 말하는 유학자들의 정자관을 볼 때 지각적 인지범위를 최우선의 입지설정의 요건으로 여겼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면양정의 조망대상은 북쪽의 추월산에서 남동의 금성산에 이르기까지 못 산들이 면양정의 안대로서 파노라마적으로 펼쳐지는데, 그 거리가 실제로 45 km에 달하며 그 조망 각도는 220도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조망 각도를 통해 조망대상을 살펴보면 면양정은 비록 그 크기가 3칸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거느리는 형국은 100리가 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면양정」에는 ‘일백리 여러 산들이 들을 끼고 평평한데’ 라고, 「면양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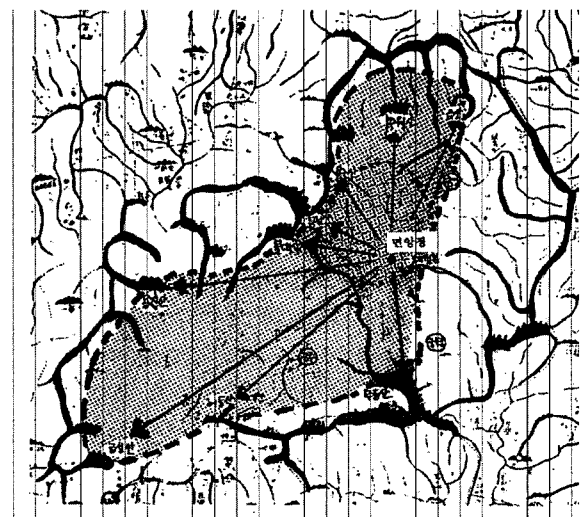


그림 5. 면양정의 지각장 (이용범, 「한국누정건축의 공간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인용)

26) 이용범, 전게서, p. 130

기」에서는 ‘머리는 추월산 아래에 일어나 꼬리는 어등산 밖에다 감추었다’고 표현되어 있다.

## V. 결 론

송순문학의 산실인 면양정을 대상으로 시와 시조, 가사 등 시문을 통하여 송순의 면양정에 대한 인식과 이해, 그리고 면양정의 공간구조를 고찰했다. 그는 그의 사고와 정신적 이미지에 따라 면양정을 자연 속의 의미깊은 중심으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송순은 면양정이라는 호가 말해주듯이 면양정을 배산임수하여 이상적인 삶을 추구하는 은둔처로 여기며, 구부러 땅에 부끄럼 없고 우러러 하늘에 부끄럼 없는, 무후의 장소로서, 이상적인 대도적 삶의 도를 구현하려는 장소로 여겼다.

또한 송순은 산수간에 수업하며 생활하는 장소를 선택함에 있어서 외부세계와 구분되고 아름다운 명산으로 둘러싸이며 앞의 넓은 들로 열려진 장풍득수의 명당 장소를 이상으로 하는 입지성을 중요시했음을 알 수 있다. 면양정은 그 입지의 장소가 갖는 의미가 중요한 것으로 경관이 트이고 이미지의 표출이 좋은 곳으로 넓은 조망을 가지는 지세적, 시계적 지향성을 보여준다. 또 면양정은 시계가 트이는 곳으로 파노라마적으로 보이는 경관이 근경, 중경, 원경의 동심원적 구조를 이루며 공간 및 시간적으로 펼쳐진다.

송순은 면양정을 초려삼간이라 부르며 겸허하면서, 자연환경 속으로 침투, 확장되어 자연을 포용하는 장소로서 자연과 일체가 되는 것으로 여겨졌다. 자연 속에서 천리의 흐름을 읽으려 하고 자연과 인간의 합일을 사유했던 송순은 그의 건축을 자연적 요소로 여기고 더 넓은 자연환경과 연계, 확장시킴으로써 자신과 건축, 자연

이 일체가 되었던 것이다.

송순의 면양정은 그의 삶과 의지를 펼치기에 적합한 입지를 선정하여 의미부여하고 자신을 자연환경 속에 정위시키고 동일시하며 전체 환경을 의미체로 경험하게 하여 참된 대도적 삶을 구현하게 하는 인간적 중심의 장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1. 김대행(1998), 『시조유형론』,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 김성기(1990), 「송순의 시가문학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 김성기(1998), 『면양송순시문학연구』, 국학자료원.
4. 김유석(2002), 「호남사립 전통원림건축 미학 연구」, 명지대학교석사학위논문.
5. 박준규, 송면양정연구, 국어문학, vol.25, no.1
6. 심재완(1984), 『시조대전』, 일조각.
7. 이용범(1994), 「한국누정건축의 공간특성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박사학위논문.
8. 이원교(1993), 「전통건축의 배치에 대한 지리체계적 해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9. 이종건(1982), 『면양정송순연구』, 개문사, 서울.
10. 이재근(1992), 「조선시대 별서정원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박사학위논문.
11. 이창환(2004), 「고려시대 별서의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박사학위논문.
12. 임영배 외, 누정의 건축적 특성에 관한 의미론적 고찰, 호남문화연구 24집
13. 정병욱(2000), 『한국고전시가론』, 신구문화사.
14. 『한국고전문학전집』,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95
15. 西垣安比古, 「背山臨水して「すまう」こと」, 일본건축학회계획논문집 제409호.

(接受: 2005. 5. 12)